

2040년 국내시장 규모 13조... 이통3사, UAM 사업 '군침'

SKT, CEO 직속 태스크포스 발족
KT, 통신서비스 보안·신뢰성 확대
LGU+, 생태계 기반 구축 역량 결집

도심항공교통(UAM) 시장 경쟁이 뜨겁다. 이통통신사들이 UAM 시장을 선전하기 위해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CEO 직속으로 태스크포스를 발족해 연구와 투자를 병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선도사업자로 진화해 나가는 게 목표다. KT는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보안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UAM 생태계 기반 구축에 역량을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올해 61억 달러 규모에서 2025년 109억 달러, 2030년 615억 달러로 급성장해 2040년에는 6090억 달러(73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은 2040년 13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KT, 코리아 원년 멤버

SK텔레콤은 UAM팀 코리아의 원년 멤버로 국내 주요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SKT는 CES 2023에서 K-UAM 가상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여 세계인들을 사로잡았다. /SKT

구성해 UAM 사업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SKT는 UAM 사업을 통해 시장에서 제공하던 AI(인공지능), 모빌리티, OTT(온라인 동영상서비스) 등 서비스 범위를 상공으로 확장,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서비스 구현을 위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UAM 기체와 이·착륙 플랫폼인 버티포트, 지상 교통수단 등 물리적인 요소를 지능적으로 연결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선도 사업자로 진화해 나갈 계획이다.

SKT는 또 세계 최고의 UAM 기체

제조 기술을 보유한 조비 에비에이션과 협력을 통해 내년 정부 주도의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국내 UAM 혁신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SKT는 한화시스템, 한국공항공사와, 한국교통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결성하고 UAM 사업화를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왔다. 4개 주체는 정부 주도의 'UAM 팀 코리아' 내에서 서비스·기체·인프라·연구분야를 대표하는 'K-UAM 드림팀'으로 상용화를 이끌고 있다.

SKT는 UAM 항공기의 도심지 저고도(300~600m) 운항을 고려한 5G 및 4G 이동통신 서비스와 UAM의 연계도

시험할 계획이다.

◆KT, UAM 산업 생태계 활성화

KT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과 상호 협력하고 있다. 5개사는 ▲UAM 생태계 구축 및 사회적 수용성 증대 활동 협력 ▲UA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공동 노력 수행 ▲5사 UAM 사업 협력 로드맵 공동 추진 및 실증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다.

KT는 또 지난해 말 개최된 'UAM Conflux'에서 국토교통부 등 지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을 시연했다. 또 K-드론시스템(UTM)을 활용해 인천국제공항 부근 관제권 내에서 비행 시연하는 2인승 UAM 기체 및 드론을 공항 관제시스템과 연계 교통관리를 시행하는 시연을 선보였다.

KT는 이번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사업에서 3개 분야 중 항공기·운항자, 교통관리 2개 분야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공 통신망, UAM 이해관계자 간 데이터서비스 플랫폼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KT는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UAM 전용 5G 항공망 구축을 완료하고, 성능 검증을 마쳤다. KT는 내년부터 UAM 전용 항공망에 위성통신 및 양자암호통신 기술을 적용해 UAM 운항에 필수적인 통신 서비스의 보안성

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LG, 교통관리시스템 집중

LG유플러스는 카카오톡, GS칼텍스, 제주항공, 파블로항공,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국토교통부의 K-UAM GC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사는 ▲한국형 UAM 표준 수립 ▲서비스 상용화 가속화를 위한 개별 실증 수행 ▲향후 UAM 산업 관련 추가 사업 기회 공동 모색 등에서 협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컨소시엄에서 UAM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교통관리시스템과 안정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한다. UAM의 비행계획과 운항정보를 분석해 항로를 이탈하는지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LG유플러스는 또 드론 솔루션·서비스 전문기업인 파블로항공과 협력해 교통관리시스템을 공동개발·연구하고 있다. 또한 LG유플러스, 부산광역시 등 13개 사업자·지자체·군·공공기관이 부산 UAM 상용화 및 생태계 육성을 위해 협업하고 있다. UAM 교통관리시스템과 통신인프라 상용화를 위한 기술 등 연구 및 실증을 토대로 UAM 생태계 기반 구축에 역량을 결집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 檢 고발

민주노총, 공수처에 공정위원장 고발 연대 "노동조합, 조사 응할 수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주노총이 한기정 공정위원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화물연대 파업을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지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화물연대본부의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를 통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화물연대 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까지 3일간 서울과 부산 소재 화물연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조사관 33명을 보내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노조측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며 조사가 이뤄지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않았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화물차 기사들에게 동참을 강요하거나 동참하지 않는 기사들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고자 했다.

당시 화물연대본부 구성원들은 현장 조사 기간 동안 사무실이 입주한 건물 입구를 봉쇄하고 조사 공무원들의 진입을 저지했다. 화물연대 측은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일체 조사를 거부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지난달 2일 브리핑을 갖고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예고하고 화물연대 노조 구성원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로 판단하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소속 화물 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다. 유사한 건설노조 건에서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나아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봤다.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로부터 노동조합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았고, 단체행동과 관련된 조정 절차나 쟁의 찬반투표 등 법상 절차도 거치지 않아 노조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형태의 개인사업자로 구성돼 있어 일률적으로 노조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령자 계속 고용시 1인 최대 360만원 지원

고용부, 고용장려금 사업 확대

올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앞둔 고령층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면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총 36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총 268억원의 예산을 투입, 8100여 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고

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이전보다 확대된다. 정부 예산보다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이다.

2020년 도입된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정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 또는 정년 폐지, 정년에 도달한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 또는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다.

근로자들은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어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을 유지할 수 있다. 기업은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를 갖춘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인력 채용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벤젠 등 화학물질 취급기업 20% 증가

환경부, 2020년 화학물질 통계조사

벤젠 등 국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2년새 20%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은 같은 기간 7.6% 증가했고,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제조·수입량도 늘었다.

환경부가 17일 발표한 제4차 화학물질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총 3만7107곳, 여기서 3만1600종의 화학물질을 6억8680만t 유통했다.

직전 조사인 2018년과 비교할 때 취급업체 수는 19.9%, 화학물질 종류는 7.1%, 유통량은 7.6%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석유정제 및 화학업종이 자리한 전남이 29.6%로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울산(24.4%), 충남(18.8%) 등 상위 3개 지역에서 전체 제조·수입량의 72.8%인 5억9089만t을 차지했다.

취급형태별로는 2018년 대비 제조량 8.2%(3489만t), 수입량 5.6%(1859만t), 수출량 4.1%(487만t)로 각각 증가했다. 벤젠과 황산, 수산화나트륨 등이 포함된 유해화학물질 1413종의 제조·수입량은 7936만t으로 2018년 대비 2.8% 증가했다.

페트병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파라자일렌과 시너의 원료가 되는 톨루엔 등의 제조·수입량은 줄었다. 냉각제나 반도체 세척제, 수소연료전지의 원료가 되는 메틸알코올(메탄올)의 수입량은 늘었다.

/세종=원승일 기자

SK하이닉스, 협력사 대금 1500억 조기지급

2020년부터 대금 지급횟수 늘려

SK하이닉스가 설 연휴를 앞두고 협력사들과 나눈다.

SK하이닉스는 중소협력사를 대상으로 1500억 원 규모의 거래 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일정보다 1주가량 지급 일정을 앞당기는 것. 이를 통해 협력사 자금 부담을 줄이고 '다운턴'으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는 목적이다.

SK하이닉스는 이에 따라 400여 개 협력사와 소속 구성원들이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거래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린 바 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올 초부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이 위치한 이천, 청주 지역 농축산물과 생활용품 등을 온라인 장터를 통해 구성원들에게 판매했다. 회사는 명절마다 이천과 청주 사업장에서 지역 특산물 장터를 운영해왔으나,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장터로 전환했다.

/김재용 기자 juk@